

농업인 등록제 시행...경작규모 992㎡ 등록 제한 영세농 더 힘들다

영농자재 구입 불이익...귀농 활성화도 찬물

지난 1일부터 '농업인 등록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일선 농업 조합원들이 농약과 비료 등 각종 영농자재 구입 시 큰 불편을 겪고 있다.

조합원들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의 농업경영체에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을 경우 영농자재 구입 때 비과세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예 구입을 못하고 되돌아가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농업인 등록은 농지원부와 토지대장, 농지 지번,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해 신청서류를 간소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데, 농업인 등록 자격도 경작규모 992㎡(300평)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농촌지역 활성화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난 31일 광산 평동농협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법령 개정에 따라 7월 1일부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 한해 비료와 농약, 시설자재 구입 시 비과세(영세) 및 환급 적용이 가능해진다.

그러나 이 제도는 비등록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의 명의를 빌려 사용할 수 있는 허점이 있는데다, 영농자재 구매에 제약을 가해 시중 식물약국(농약상)의 농약값 인상을 초래함으로써 영세 농업인들만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평동농협 관계자는 "조합원들의 80% 이상이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어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일선 농협에서 영농자재를 구매하는 조건이 바뀌면서 농업인들이 농협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 더욱이 최근 농촌지역에 불을 일으키고 있는 주말농장을 경영하는 영세(소규모) 농업인들에게도 불편을 주고 있어 아예 귀농의 싹을 잘라버리는 역풍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 역시 높다.

농업인 A(60·광산구 연산동)씨는 "갑자기 제도가 변경돼 혼란스럽다. 예전처럼 자유롭게(영농자재)를 구입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농업인 B(60·광산구 신장동)씨도 "최근 농협에 농약과 비료를 구입하려고 갔더니 농업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아 판매를 거절하는 바람에 되돌아왔다"며 "농업인 등록제는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불만을 터뜨렸다.



올해 여름 휴가가 절정에 오른 지난 31일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을 찾은 피서객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7월 마지막 주말과 휴일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10여만명의 인파가 몰렸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피서 절정 전남 해수욕장 등

25만여명 북새통

무더위가 계속된 지난 31일 광주와 전남지역 물놀이 시설과 주요 해수욕장, 계곡 등에는 모두 25만여명의 피서 인파가 북새통을 이루었다.

이날 광주시 북구 금호해미리랜드 수영장은 1000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려 물놀이를 즐기며 더위를 식혔다. 나주시 남평읍 증흥골드스와 리조트에도 6000명 가량의 피서 인파가 몰렸다.

신안군 증도면 우전해수욕장과 보성군 회천면 울포해수욕장에는 각각 3만8000여명과 3만2000명의 피서객이 다녀갔다.

또 완도군 신지면 명사십리 해수욕장에는 4만5000여명이, 영광군 흥농읍 가마미해수욕장에는 1만5000여명이 방문하는 등 이날 하루에만 도내 66개 해수욕장에서는 25만여명의 피서객이 더위를 식혔다.

한편, 광주와 전남을 비롯한 전국에는 1일 오전부터 비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비는 3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日의원 3명 “울릉도 방문 강행”

한국정부 입국금지 불구 오늘 방문

독도 영유권 강화조치를 견제하고 자 울릉도에 가겠다는 일본 자민당의 의원들이 한국 정부의 입국 금지에도 불구하고 1일 방문을 강행하겠다고 선언, 파문이 예상된다. <관련기사 3면>

울릉도 방문 의원단 단장인 신도 요시타카 의원은 지난 30일 낮 12시 도쿄의 중의원 제1의원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 일정상 갈 수 없게 된 히라사와 가쓰에이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3명이 예정대로 8월 1일부터 4일까지 방문할 것”이라며 “한국측이 ‘입국을 거부하겠다’고 사전 통보 했지만 정말로 그렇게 할지는 모르는 만큼 한국에 가보겠다”고 밝혔다. 방한한다는 3명은 신도 의원과 이나다 도모미 중의원 의원, 사토 마사히사 참의원 의원이다. 이들은 1일 오전 8시55분 하네다 공항을 출발, 1시간여 뒤인 11시20분 김포공항에 도착할 예정이다.

신도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우리들의 입국을 거부하면 이는 한일간 외교 문제가 될 것이고, 양국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

고 주장했다. 그는 또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 명칭) 문제에 대한 일본 국민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려고 한국에서 소동을 벌이려는 건 아니다”라고 거듭 주장했지만 방문 시점을 이달 초로 잡은 이유에 대해 “한국측이 8월5일 다케시마에서 주민 숙소 완성 기념식을 열고, 12일에는 국회 특별위원회를 개최한다고 해서 8월 초로 잡았다”고 밝혀 정치 논란을 일으키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았다.

자민당은 공식적으로는 국회 회기 중 의원들의 외유에 필요한 국회 허가 등 절차에 협조하지 않으면서도 내부적으로는 ‘개인 방문’에 동의한

사실도 확인됐다.

신도 의원은 “(이시하라 노부테루) 간사장과 (이시바 시게루) 정책조사회장이 ‘개인 방문으로 처리하자’는 얘기를 나눴고, 나는 정책조사회장으로 부터 그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사실 당 과격이나, 개인 방문이라는 차이는 당이 경비를 지원하느냐는 점 뿐이고 요즘 자민당은 사정이 어려워 경비를 모두 주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일본의 울릉도 방문 강행 방침이 알려지면서 이제오 장관이 지난 31일 “한반도에 그들이 디딜 땅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강조하고, 북한도 일본측을 맹비난하고 나서는 등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학교설립 57주년 (1954~2011)
기독교 명문대학
광신대학교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광주의 새로운 명문 대학교
남부대학교
(062) 970-0114
꿈을 이루는 특성화 대학
전남과학대학
(061) 360-5050

30년 소아 전문 美교포의사 은퇴 봉사 전남도 ‘행복의원 1호’ 보길도에 문 연다

담양 출신 정우남씨 내달부터 진료 시작

의료 소외지역인 전남의 한 외딴 섬에 30년 경력의 베테랑 교포 의사가 수호천사로 나섰다.

주인공은 담양 출신으로 미국과 중국에서 33년간 소아과 전문의와 대학교수로 활동한 정우남(68)씨. 전남대 의과대학을 나와 미국 휴스턴 등지에서 소아과 전문의로 활동해온 정씨는 5년 전부터 조선족자치구가 있는 중국 연변(延邊)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해오다 지난해 은퇴한 뒤 귀국했다.

영여교사 출신인 부인과 함께 의미있는 노후생활을 고민하던 정씨는 인생의 황금기를 어려운 이웃에 대한 봉사로 채우기로 하고, 고심 끝에 낙도 의료봉사를 결정

하게 됐다.

정씨가 일하게 될 곳은 광주에서 자동차로 3시간 달린 뒤 배로 1시간을 더 가야 도착하는 완도군 보길도. 거리로만 160km에 이르는 외딴 섬으로, 아이들이나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아플 때면 병원에 가기 위해 수시간씩 고통을 참아야 하는 의료 사각지대이기도 하다.

정씨는 휴가기간이 끝나는 9월부터 전남도 ‘행복의원 1호’로 명명된 보길면 보건지소에서 고국에서의 첫 진료에 나서게 된다.

주요 진료 대상은 완도군 노화읍, 보길면, 소안면 등 3개 지역 14세 미만 어린이들, 잔공을 살려서

지만 위급한 경우에는 노약자 등 일반인도 진료할 계획이다. 정씨의 부인과 필요할 경우 나도 어린이들에게 영어를 가르칠 생각이다.

전남도는 완도군의 지원을 받아 펜션을 임대해 정씨 부부의 거처로 제공하고, 소정의 생활비도 지급할 계획이다. 또 진료에 사용될 각종 의약품과 장비도 제공하기로 했다.

이해구 전남도 보건한방과장은 “의료환경이 취약한 섬 주민들을 위해 ‘은퇴의사’를 활용한 ‘행복의원’ 사업을 추진했지만 그동안 지원자가 없었다”며 “정씨 부부의 헌신적인 은퇴 봉사가 귀감이 돼 행복의원이 타 지역으로도 확산될 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가나안 블루베리 농장특별분양!!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세계10대 건강식품” 블루베리농장주를 모십니다.

모목 분양(기술 이전)

1. 광주 전남 지역에 가장 어울리는 품종 다수
2. 기술이전 및 꾸준한 판매관리

농장주 모집(등기 이전가능)

1. 2년생에서 6년생까지 생과 생산 가능
2. 혁신도시 인근 자가 상승기대 및 생과 가격 수입 보장

도트락100%원액판매

제품명: 도트락 블루베리
원재료명 및 함량: 블루베리원액 100% (블루베리 농축액 18brix) 제조원: 도트락(주)

• 18브릭스(brix)란?
일제 첨가물 없이 블루베리 생과를 1,000cc를 갈았을때, 800cc수분을 증발시키고 남은 원액을 말합니다.

가족의 건강 내 농장에서 직접 생산한 신선한 블루베리로

- 병충해에 강하고 50년 이상 자생으로 누구나 작목 가능
- 가족과 주말농장으로 친환경 블루베리 수확가능
- 소액투자로 생과판매 수익 및 토지 수익 효과(혁신도시와 5분거리)

Ex) 모목 34구루 작목 - 1구루당 약 3kg~6kg 수확가능
생과 1kg 판매가격 약5만원 (2011년 현지 평균 판매가격)
1년 생과 판매수입 약 680만원정도...

혁신도시와 5분거리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전력공사 및 한국농어촌공사
이전 공공기관 15개 이전 확정

농업 법인 회사 (유)가나안

최적의 입지 조건과 생산환경으로
최고의 블루베리 농장으로 조성

성공적인 작목기술 보유로 최고 품질

혁신도시 인근으로 향후 자가 상승효과
및 꾸준한 수익으로 노후대책 가능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와 근접해있습니다
혁신도시 인근 자가 상승기대 및 생과 가격 수입 보장

대리점 및 가맹점 모집 문의 / 함께할 직원을 찾습니다

1661-0880 / 062-716-7000
010-9299-5679